전북 회화



통권 제 2 호
전북회화회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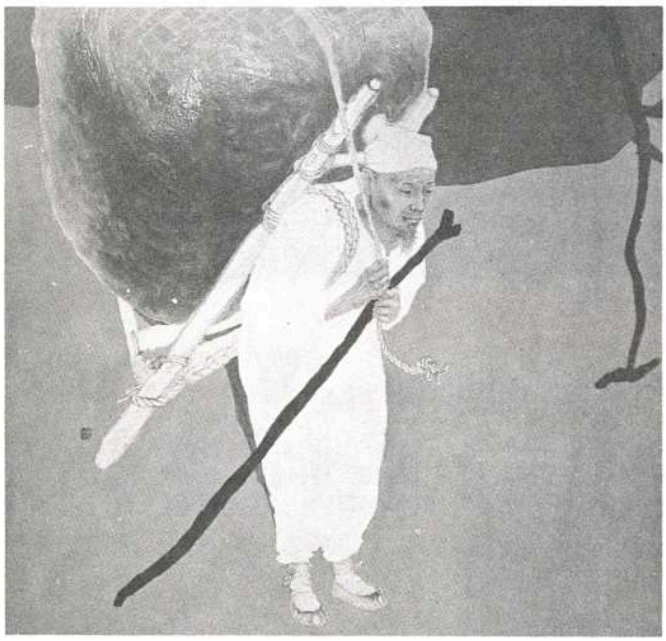


표지작가 : 지 민 수 (池旻洙 : 1965~)

- 전북대학교 및 동교육대학원 졸업
- 개인전 3회와 30여회 그룹전 참여
- 現. 한국미협, 전북회화회와 전북한국화회, 꼬올모임, 해성중학교 재직

이 철 규 전 : 1994. 6. 20(월) ~ 6. 30(목)
우 진 문 화 공 간

이번 작품에서 괄목할 만한 사실은 종래의 수묵을
배제한 조형작용으로서의 표현에서 다시 민화적 표현으로서의 색채와
부분적표현을 위해 수묵을 재등장 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어쩌면 그가 다시 건너야 할 강가에 도달해 있음을
알려주는 징후학적 반응이라고 볼수 있다.
수묵이나 채색으로 시작한 그의 회화작업이 그동안 서양의
포스트모더니즘 패턴속에서 실험과 모색으로서의 방황을 하다가 이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새롭게 던지고 있는 하나의 징후이기도 하다.



'94
옛날에는…
100×100.
장지에.
수묵채색.

이번 그의 세번째 개인전에 보여주는 작품 역시 이러한 자신의 지각을 반영하는 하나의 방향잡힘이다. 서로 다른 공간의 대질을 통해 종전에 보여주던 도시문화 패턴이 향토문화적인 패턴으로 바뀌면서 동학혁명, 농민, 민화 등 과거의 삶을 바탕으로 잊혀져 가는 전통속에서, 가난한 농촌의 삶을 바탕으로 잊혀져가는 전통속에서, 가난한 농촌의 삶을 통해서, 황폐해가는 자연을 통해서 회화적 메세지를 재생산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희망과 절망이라는 두가지 인간의 조건으로 귀착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작품에서 괄목할 만한 사실은 종래의 수묵을 배제한 조형작용으로서의 표현에서 다시 민화적표현으로서의 색채와 부분적표현을 위해 수묵을 재등장 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어쩌면 그가 다시 건너야 할 강가에 도달해 있음을 알려주는 징후학적 반응이라고 볼수 있다. 다시말해서 수묵이나 채색으로 시작한 그의 회화작업이 그동안 서양의 포스트모더니즘 패턴속에서 실험과 모색으로서의 방황을 하다가 이제 "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새롭게 던지고 있는 하나의 징후이기도 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술을 인간과 세계를 통합하는 하나의 문제제기 기능으로 볼때, 오늘의 국제화, 정보화, 그리고 뉴 미디어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역성이나 특수성을 지나치게 비대증식 해야할 필요가 있느냐는 사실이다. 왜냐면 새로운 창조는 인위적이거나 방향잡혀진 기존의 질서에 도전하여 얻어지는 자신으로서의 쟁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폴 바렐리(Poul Vrelly)역시 "예술은 자기부정을 통해 은신처를 마련하고 자기죽음을 통해 영생을 얻는다." 라고 말하지 않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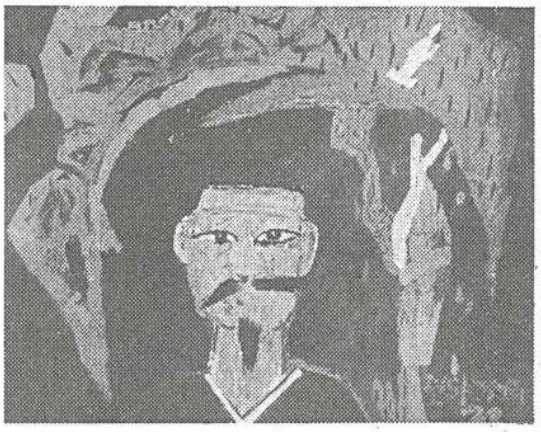
아무튼 젊은작가 이철규의 작업이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경직으로 묶여진 우리 동양화단에 새로운 창조적 장(場)으로서의 물꼬를 트는 행위로 지속되기를 기대해 본다. 전북회화

글/김재권 미술이론가/조형예술학박사

전 량 기 전 : 1994. 6. 13(월) ~ 6. 19(목)

정 갤러리, 얼 화랑

완산성 밖 호리꾼 이야기



◇19일까지 전주 얼화랑과 정갤러리서 열리는 전량기씨 테마기획전 출품작.

說話속의 민중문화 화폭에

전량기씨 테마기획전 「完山城밖…」

전량기씨(32)가 19일까지 전주 얼화랑과 정갤러리에서 동시에 개인전을 갖고 있다.

지난해 원광대 한국화과를 졸업, 그 이후 이어지는 각종 단체전을 통해 왕성한 창작열을 보여온 그는 91년부터 해마다 개인전을 가져오면서 자기 발전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신인작가다. 넘쳐나는 창작작업에의 열정을 다작의 작품으로 얻어낸 그는 이번 개인전을 아예 두 곳의 화랑 전시로 꾸렸다. 그동안의 작업들과 별반 다르지는 않지만 「완산성 밖 호리꾼 이야기」는 그의 세상사에 대한 관심의 폭을 새롭게 보여주는 또하나의 이야기이다.

전시화제

지난해 「호랑이는 동굴속에서 나왔다」는 주제전으로 감성적이고 자유로운 이미지의 작업은 마무리를 지었다. 이번 전시회의 작품들은 보다 도덕적인 인간관을 바탕으로 한 그의 새로운 관심의 시작인 셈이다.

『진동규시인의 시들에서 읽혀지는 민중적 감성을 화폭속에 끌어 들이고 싶었다』는 그는 우리 역사에 대한 시각을 지배자의 입장에서가 아닌 피지배자의 입장에 세워두고 과거를 보고 있다.

「완산성 밖 호리꾼 이야기」는 바로 그 자신의 시각을 점철한 세상사에 대한 물음이자 우리의 지나간 역사에 대한 한 젊은이의 의식으로 드러난다.

자신의 언어를 드러낼 수 있는 형식을 찾기 위한 끈질긴 실험의식을 부단하게 풀어내어온 그의 작품들은 자신의 작업량만큼이나 넉넉한 이야기들을 그림속에 담아내고 있다.

평면작업만을 고집하는 그는 단청 물감의 강렬한 이미지와 질감의 조화를 신선하게 보여주기도 한다. 〈恩〉



전북 회화

전북 회화회는 전북 지역에서 한국화를 전공하고 현재 의욕적인 작품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작가 개개인의 작가적 역량을 넓히고, 회원 상호간의 교류 및 친목을 도모하여 지역의 작품활동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전/북/회/화/회/발/자/취

1990.	3. 13	전북회화회 구성 – 고재명, 김자경, 성민홍, 유선영, 이영현, 이철규, 이철량, 이희춘, 정미현
	5. 31 ~ 6. 13	**중앙시장사람들展**, – 얼화랑 – 주제전
	6. 21	신입회원 가입 – 박인현, 조돈구
	12. 29	신입회원 가입 – 김경운, 김현경, 문순, 지민수, 최전숙
1991.	1. 4 ~ 5	스케치 여행 : 해남 대흥사
	3. 9 ~ 3. 14	**전북회화회展**, – 전북예술회관 – 정기전
	6. 8 ~ 6. 20	**전북의 산하展**, – 우진문화공간 – 주제전
	6. 15	전북의 산하전에 따른 "작가와의 대화" – 전시장
	8. 31	하계 세미나 – 지리산 정아콘도
		주제 : "미술의 구조적 이해"에 대하여 – F.B.Feildman저, 김춘일역
		사회 : 이철량
		발제 : 지민수, 김현경, 문순, 고재명
	12. 14	정기총회, 총무 – 이영현
		신입회원 가입 – 김경희, 박양수, 안순금, 조현동
1992.	6. 4 ~ 10	**전북회화회展**, – 대성화랑 – 정기전
	10. 21	정기모임 – 총무 고재명 선출
	12. 1 ~ 7	**교동의 표정展**, – 얼화랑 – 주제전
	12.	회원탈퇴 – 김경운, 박양수, 박인현, 성민홍, 이영현, 이철량, 이희춘, 조돈구
1993.	3.	신입회원 가입 – 방정엽, 임소형, 전양기, 정문배, 조양현
	5. 14 ~ 20	**전북회화회展**, – 우진문화 공간 – 정기전
	5. 16	정기전에 대한 "작가와의 대화" – 전시장
	6. 5	신입회원 가입 – 이철량
	8.	하계 스케치 여행 : 군산 개야도
	9. 17 ~ 26	**전북회화회展**, – 정갤러리 – 중간전시
	12.	회원탈퇴 – 김경희
1994.	1.	신입회원가입 – 모용수, 양현식, 황미경, 이환배
	2. 25 ~ 26	정기모임 및 신입회원 – 환영 M.T (회문산 자연 휴양림)
	6. 15 ~ 6. 21	**정기전북회화회展**, : (전북예술회관)
	7. 29	하계스케치 : 동상수련장
	12. 14 ~ 20	**후반기 전북회화회 테마展**, – 전북인물열전 (예루 갤러리)

여기 모인 전북회화회 회원들은 그들가슴속에, 혈관속에 전북의 기상과 분노를 그리고 선험적 예술성을 가지고 출발한 이시대의 첨병들이다.

두번째 전북회화회지 발간을 즈음하여.....

창간사에서 예를 들었듯이 전북예술은 西로 끝없이 펼쳐진 곡창지대를 바탕으로 한 풍류와 낭만이 넘치며, 지정학적 특성을 그대로 소화한 상충과 조화의 멋이 배어있다. 또한 삶, 그 자체에도 멋과 맛의 예술적 정서가 베어나지 않는 곳이 없다.

즉, 옛부터 傳統을 그대로 고수하되 잘 가꾸어 발전시켜왔던 것이다. 특히 전북의 미술 문화의 모습에서도 본능적이고 타고난 예술적 기질을 발휘하여 전통을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그 나름대로 노력의 경주를 아끼지 않았다.

그렇다면, 전통을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그 노력의 경주에 대한 가시적인 댓가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왔는가?

이에대한 댓가는 전통에 대한 새로운 분석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목표로 하되 다시한번 각오와 노력을 기울여야 얻을수 있는 것이다.

性徹 스님의 "쌍수레" 법문에서 통방겸추(痛棒鉗鎚)라는 말이 있다.

방망이로 아프게 때린다는 뜻과 소에게 자갈을 물려 다른 곡식을 범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인데, 이처럼 고된 훈련과 시달림의 격렬성을 통해 혼미한 정신을 벗기고 바른길로 눈을 뜨게 한다는 뜻이다.

즉, 수련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깨달음이 더욱 크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통방겸추의 마음으로 자신은 내면에 숨겨진 "마음속 깊은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모습에 충실할때. 전북회화의 새로운 발전 모색의 장이 이룩되리라 생각하며, 전북회화회는 그 선봉이 될것이다.

전북회화

황 미 경 전 : 1994. 5. 3(화) ~ 5. 9(월)
정 갤러리



"筆만 있고 墨이 없다"

장언원의 《역대명화기》, 권9〈오도현〉조를 보면 〈무릇 컴퍼스나 자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 그림은 죽은 그림이고, 정신을 잘 지키고 전일하게 하여 그려낸 그림은 참된 그림이다. 죽은 그림을 벽에 가득히 그려 놓으니 벽을 더럽히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일획에도 생기가 나타난다. 생각한 대로 붓을 움직이면서 스스로 그림답다고 생각한다면 더욱 잘못된 그림이 될 것이며, 생각을 운용하여 붓을 움직이면서도 뜻이 그림에 얽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잘된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손과 마음에 막힘이 없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표현에 있어서의 전통기교에 대한 해방, 더 나아가서는 정신성의 표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며 "기교를 초월한 기교"의 意在筆先의 세계인 것이다.

"지금 나의 공간에서 욕심부리지 않고 소박하고 편안하게 흘러가는 것이 마르지 않는 강줄기가 되어 계속 흘러 갈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며 그림 그리려 한다."

"붓과 함께 마음의 자연을, 삶의 형사을 거닐어 보고 싶었다."라는 그의 독백처럼…… 전북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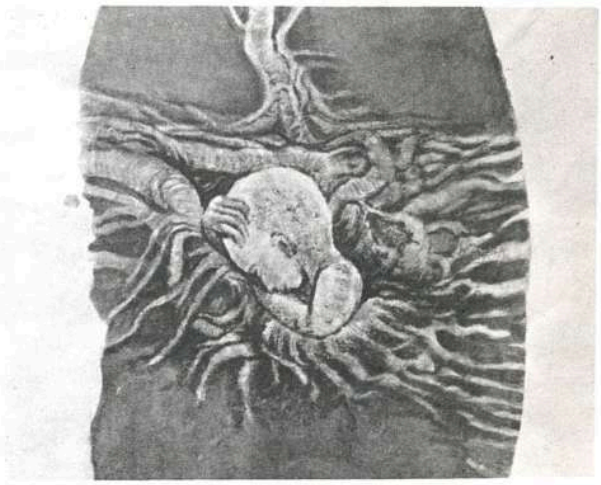
고 재 명 전 : 1994. 6. 7 ~ 12

얼 확 랑

人間本性의 回復을 갈망하는 실존의 메세지

高載明은 그동안 작업연륜에 비해 비교적 많은 단체전과 개인전을 통하여 활발하고 꾸준하게 작품활동을 펼쳐온 젊고 패기있는 작가이다. 그는 주로 첫번째 개인전부터 이번 작품전까지 일관된 자신의 메세지를 전달하려는 새로운 시도들을 보여왔다. 대개 온갖 괴이하고 이상한 인간의 표정들을 화면 전면에 부각시킴으로써 마치 커다란 공포와 고통에 절규하는 대환란의 현장을 目睹하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게 하곤 한다. 그는 수묵과 화선지라는 전통적인 매재를 통하여 주로 인간의 다양한 모습들, 즉 苦痛과 喜悅, 絶望과 希望, 僞善과 良心 등의 인간 세계의 여러가지 양태들을 화면 가득히 뒤얽어 제시한다.

이러한 충격요법은 평면을 떠나 입체작업으로 더욱 강도를 높이기도 하는데, 1991년 "祭壇위의 식사"라는 주제의 다섯번째 개인전에서는 剝製된 인간이 제물로 희생되어지는 상황을 공포스러운 분위기의 설치작업을 통하여 연출한 바도 있다. 물론 이와같은 거의 수묵으로 일관한 채색의 도입이나 다양한 오브제의 제시를 통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거의 수묵으로 일관한 채색의 도입이나 다양한 변주와 수묵의 담백한 효과를 충실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판화기법을 이용하여 화면에 깊이있는 효과를 부여하는 점은 작가 나름대로 먹의 무한한 조형성을 깊이있게 실험하려는 시도로써 작품의 분위기를 충분히 살려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가 일관되게 추구하는 인간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삶에 대한 가치관의 바탕은 사실 그의 학창시절 동안 이루어졌다. 비교적 감수성이 예민한 대학시절동안 부딪히게 된 집안의 갑작스런 황폐화와 가족들이 겪은 현실적 고통, 그리고 국립사범대학 임용고시부활로 인한 시위과정에서의 처절한 상황의 목격 등, 이러한 체험들로 인하여 그는 인간사회가 가면을 쓴 거대한 조직체라는 것을 실감하게



탄 생. 수묵담채 1994.

되었고, 철저하게 배반당하는 인간들의 무기력한 현실을 직시하게 된것이다. 그로부터 그는 본격적으로 개개의 인간들이 상품화되어 인간성을 잃어버린 상태로 발가벗겨지고 찢겨져 고통과 절망의 상태에서 보여지는 실존의 상황을 그대로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자신의 발언을 더욱 적극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하여 병원의 영안실을 찾아다니면서 부검후 시체들의 고통스런 표정과 시체실에 안치되어 있는 다양한 주검의 모습들을 수없이 그려내기도 하였다. 이번 전시에서도 그는 각종 人間群像들의 극한적인 모습과 찌그러지고 일그러진 표정의 얼굴들 또는 제스쳐를 작가 나름대로 형상화하고 있다. 결국 그 형상을 통하여 어떤 절대자로서의 신의 구원을 바라기 보다는 인간 스스로 잃고 있는 자신의 참모습들을 그속에서 찾고 大悟覺醒하기를 바라는 것이리라. 즉 그는 파괴된 인간성의 회복에 역점을 둔 인간가치의 복원이라는 메시지를 강한 충격요법을 통하여 전하고 있다하겠다. 전북회화

申 鉉 湜 (美術史家, 전북대학교 강사)

정 미 현 전 : 1993. 8. 17(화) ~ 8. 23(월)

얼 화 랑

시 간 앞 에 서



달 산. 천 위에 수묵담채. 116×91. '93

시간 앞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한다. 모든 것은 흘러가 버리고 이내 사라져 버린다.
그 안타까움이란 !
그게 인생일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 강렬한 부정.
정미현의 고집은 바로 그 사라져 버리는 것들에게 갖는 지독한 애정의 다름아니다.

그저 스치듯 지나가는 단순한 일상에서도 그는 놓칠 수 없는 이미지를 표출한다. 그의 눈빛 그물망에 걸린 事象들은 먹물에 풀려, "사라지지 않음"으로 자리한다.

처음에 '나무', '산', '하늘', '물'과 같은 자연과 그리고 인간을 소재로 하여 그의 수묵 작업은 시작되었고,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은 모든 대상을 복합적으로 뒤섞어, 때론 섬세하게 때론 대담하게 형상화하기까지 그는 속으로만 얼마나 부대꼈을까.

그러나 그는 늘 물같이 살아간다. 아무리 힘든 현실이라도 그에게는 기꺼이 흐르고, 넘어야 할 산일 뿐이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산을 오르는 것처럼, 그림이 좋아 그릴 뿐이다. 그럴 때의 산은 이미 산이 아니고 '어찌할 수 없는 내 분신의 속성'이 되어 버리듯, 그에게 있어 그림이란 새삼 정의할 수 없는 '그 운명적인 것'이 되어 있다.

"머덜라고 그린다냐, 아새끼 낳고 키우기도 고단헌디....."

그러나 그는 일상성을 소중히 가꾼다. 흔히 '끼'를 내세우며,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식의 평범성은 거부하는 것이 예술 행위의 표본인 양, 은근히 치장하는 역겨움을 그에게는 볼 수 없다. 허나 아무렇지도 않는 특별날 것 없다는 '보통여자'인 정미현은 꾸준한 작품 활동을 통해 변화와 실험정신을 내보인다. 참으로 쉼없는 갈구이다. 그리고 작품 속으로 들어가 그 자신이 오브제가 된다. 전통적 수묵으로 시작했음에도 그의 기법은 너무 현대적이다. 그럼에도 수묵 고유의 정통성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자연을 그린다든지, 인간의 다양한 이미지를 표현하려는 시도 또한 작품의 외연적 의미와 내포적 특성을 표출하기 위한 그의 '끼'의 발산이다. 그러나 역시 그는 적어도 겉으로는 그저 그런 보통의 그림그리기 좋아하는 여자이다.

이제, 그에게 있어 그림이란 '바로 이순간'의 '살아 있음'에 대한 소중한 느낌이며, 무한한 상상력으로 보는 이의 '일상'을 깨뜨리는 자유스러움이다.

그를 지켜 보는 것은 즐겁다. 전북회화

이 정 애 (전북대 국문과 강사)

한국화의 정착과 세계화를 위하여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송 계 일 교수

요즈음 한국화단의 전반적 풍토가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않다.

말하자면 국적이 없다느니, 너무 식상하다느니, 방향감각이 없다느니, 한국화의 현주소가 불분명하다는 이야기다. 그것은 결코 무리한 지적도 아니며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도 분명히 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방관만 할 수도 없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시대적 사명이요, 작가적 책임이다. 이것은 다같이 풀어야 할 공동의 과제이기에 몇 마디 하고자 한다.

산업사회가 극대화 되면서 그리고 냉전시대가 종식되어 가면서 국제질서가 획기적으로 달라짐에 따라 우리 예술분야 역시 예외가 아닐 수 없다. 드디어는 국제무한 경쟁이라는 무거운 짐을 우리는 극복하기 위하여 범 국가적 차원의 공동노력을 해야하는 책임감을 실감치 않을 수 없다.

특히 국제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역사적인 숙명처럼 연관된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우리는 밀접한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최근 북·미회담의 타결로 인한 남북관계 개선 등 정치적·사회적 관계가 급변하면서 우리 예술문화의 시대적 입장은 참으로 그 위상과 참모습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어느때 보다도 절실한 시점에 와있다. 정치를 비롯한 제반 사회적 환경 조건에 말려들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고있는 환경에 접해 있다는 뜻이다. 국가간에 이해를 돕고져 서로를 인식하려는 단계적 수준은 문화교류가 그 우선이다. 때문에 우리 한국화의 현 주소가 더욱 분명해져야할 필요성이 강해졌다고 본다. 비단, 이것 때문만은 아니다. 미술사적 순수예술 활동에 있어 작가들의 본연의 몫이 더 문제라는 것과 맡물려 있기에 더욱 강한 인식을 갖는다는 것이다. 한국화의 현대화 작업 원년을 60년대로 본다면 벌써 30여년이 흘렀다. 그 동안 수많은 양식과 표현상의 실험을 거듭해 왔다.

소재중심, 조형중심, 표현중심, 이데오르기 이미지 중심등 거듭나는 실험을 통한 결과는 종합주의적 양상으로 나타났다 할 수 있다. 서구의 포스트모더니즘 이라는 사회적 새로운 문화의식과 함께 더욱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했다.

때문에 새로운 검증과 비판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즉, 외형적 표현상의 잡식성 시식같은것 또는 내부적 갈등과 허공같은 허탈감 같은 것이다. 맹목적 전통의 탈피와 무비판적 서구조형주의 추종같은 실험은 매우 위험스런 모험이 아닐 수 없다. 회화 예술이 순수한 미학적 입장보다는 거부를 위한 거부나 특정목적에 영합하는 이데오르기적 표현은 자칫 한 시대와 한 민족의 중심문화 즉, 전통의 뿌리를 퇴색케하는 위험이 따를 수도 있다. 그리고 재료와 연장등 표현상의 제반문제를 확대하거나 극대화 시켰다고 새로운 것도 아니요, 양식상의 조형성을 심도있게 추구했다고 해서도 전부는 아니다. 소재의 다양성을 수용해서도 아니다.

도대체 왜 아직도 한국화단이 그 방향감각을 잡지 못할까?

나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제언코져 한다.

첫째 : 우리것이라는 총체적 개념과 독자적인 자기 문제이다.

지구촌이라 불릴만큼 세계의 문화가 아무리 보편화 됐다 해도 그 속에서 우리 체질에 맞는 사상과 감정, 역사성같은 것이 내재하는 미학의 범주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총체적 개념 중에서도 "나"라는 자기 의식이 분명해야 할 것이다. 예술은 어느 시대나 그 독자성을 절대 우선 했기 때문이다.

예컨데, 동양의 기(氣) 사상이나 음·양사상, 그리고 민화적 민족의 회화성향 같은 것 이거나 각종의 의식행사에 접하는 문화 유산 속에서 우리 민족에 전통문화의 맥을 살펴 봄으로써 그 가능성을 찾을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오늘의 현실속에서도 자기적 식견을 찾을 수도 있다. 말하자면, 냉철한 현실을 직시 함으로써 인간이 택해야할 최선의 문제점 이라든가, 아니면 자기의 체험적 사건을 미화 하려는 노력이다.

이지적 계산과 논리적 근거도 아닌 가슴으로 그리는 생명력 같은 것이다.

이러한 사연들을 작품화하여 세계적 공감대를 갖도록 하는 일이다.

둘째 : 표현적인 제반 문제들이다.

표현이라는 총괄적 범주는 한이 없다. 그러나 그 중심적 내용을 대략한다면 매체요건, 기능적 사항, 그리고 매체와 기능성을 여하히 운영 하느냐 하는 방법론이라 할수 있다. 이것을 전통적으로 계승 한다 든지 새롭게 개발 하거나 확대하여 보다 폭넓은 표현상의 개념을 극대화 하려는 노력이다. 서구적 발상이나 방법에 의존 하거나 추종해서도 안된다. 다만 상호 보완 하거나 필요부분의 적당량의 수용성은 무리가 아니라고 본다. 회화개념의 인식에 있어 서구적 조형론과 동양적 사의론의 맞남은 바람직한 새로운 감각이 되지 않을까? 한다. 그렇다고 동·서의 소속감을 초월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자체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표현코저 협력관계를 갖거나 동·서의 이해를 돕고저 미학적 공통성을 찾자는 것이다. 그래서 20세기 한국화의 참 모습을 새롭게 창출하여 세계화의 노력에 그 위상을 높이자는 것이다.

셋째 ; 창작의 외적 요건에 관한 사항이다. 지금까지의 작가들은 거의가 자기 작품 제작에 충실하며 그 작품들을 모아 개인전이나 단체전, 초대전 등에 동참하는 일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이제는 안된다. 급변하는 사회는 구조적으로 우리의 안일한 생활을 용납치 않는다. 보다 폭넓고 영속적이거나 전문성의 극대화를 요청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예술이 이 사회에 긍정적인 보탬이 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예술과 사회의 만남은 접근할수록 예술의 생명력이 길어 질 것이며, 그것은 예술의 최대 보람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현재 우리 화단의 주변을 살핀다면,

① 전시공간의 절대 부족과 전시장 풍경이다.

늘어가는 미술 인구를 다 수용 할수는 없어도 최대한의 전시공간 확보를 위한 관과 민의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한다. 그리고 전시장의 써늘한 감상객의 빈곤을 메꾸려는 적극적 흥보를 해야 한다. 집안 식구 끼리의 잔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대중과의 만남을 위한 적극적 모색을 해야 한다.

② 발표 무대의 극대화

모든 작가가 그런 것은 아니나 대부분의 지역작가들이나 중앙작가들도 전시지역의 한계가 너무 고정적이다. 전시문화가 발달됐던 아니든 전시지역의 다양성은 작가나 지역을 위해서도 매우 유익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또한 전시의 전국화는 물론이려니와 세계화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감수해야 한다. 국제간의 협회를 결성한다든지 상호교류를 위한 정보를 교환하는등 전시의 극대화를 모색해야 한다.

③ 창작활동을 위한 제도적 관계이다.

이것은 비단 우리 예술 뿐만 아니다. 한 시대가 전반적으로 변하고 모든 변수가 맞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조처가 당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행 우리 미술계와 연관된 법령이나 각종의 제도는 오늘의 현실적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적인 모색을 크게 저해 하거나 방치한 상태이다. 미술관법, 미술유통,활동, 관리, 보관, 운영등 많은 분야에서의 점검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는 미술인이나 관계 당국의 비상한 대책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이외에도 많다. 아무튼 젊은 세대는 꿈과 현실을 잘 조화시켜 오늘의 한국화가 전통의 뿌리를 뽑지 말고 잘 가꾸어 세계 속에 그 위상을 높이고 그들의 관심을 끌어 들여 한국화의 진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결국 예술가는 끝없는 나그네의 여정 같은 것이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걸어가야 한다. 전북회화

◐ 약 력 ◑

碧耕 宋 桂 一

弘益大學校 美術大學, 建國大學院 卒業
國展 招待作家
國展 國務總理賞 受賞
全北文化賞 受賞
牧汀文化賞 受賞
審査委員(大韓民國 美術大展. 全南北道展.
無等美術大展. 韓國美術大展.
新羅美術大展. 春香美術大展)
韓國 現代美術 招待作家
SEOUL 美術大展 招待作家
韓·中 美術協會員
韓·獨 美術協會員
全北大學校 藝術大學長 歷任

(自)우135-110 서울시 압구정동 현대A.P.T 125-104
TEL : (02) 542-7570
(職)우560-756 全北 全州市 德津區 德津洞 664-14
全北大學校 藝術大學 美術學科
TEL : (0652) 70-3727(研究所)
70-3726(科學事務室)

나의 작업은 인물을 소재로한 작업으로 일관하여 왔다.

사람이란 누구나 자기만이 추구하는 개성 감성 등 각 개인의 습성과 사고 방식으로 살아간다.

특히 급변하는 현대사회속에서 인간의 모습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여 가는 사회구조속에서 본성 또는 후천적 속성에 의하여 카멜레온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저마다 색깔을 달리하면서 변화하는 모습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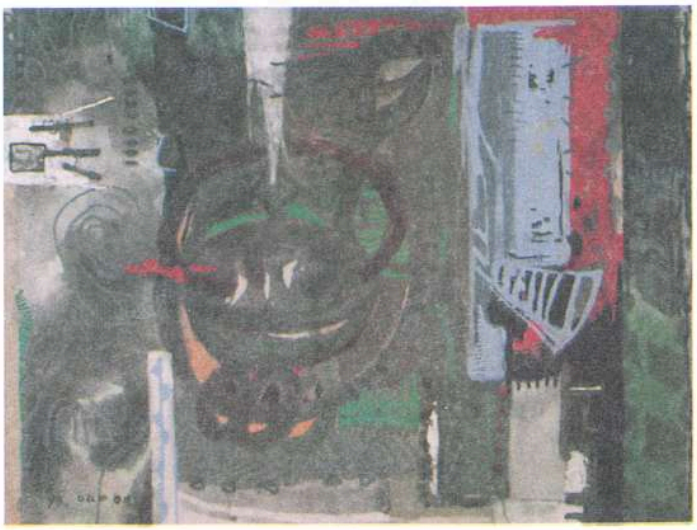
이러한 사람들의 생활상을 나의 작업의 소재로 접목시킴으로서 비춰지는 대상을 진지하고 솔직하게 화면에 담아내어 또다른 이로 하여금 공감할 수 있도록 기대하며 작업을 진행하여 왔다.

또한 나의 작업 소재로는 소가 등장한다. 그것은 물리적현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간의 모습과는 달리 소를 화면에 등장시킴으로 인해 우리가 느끼는 소의 모습을 인간과, 인간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소의 형상과 비교하여 문제의식을 느껴보고자 하는것이 내 작업의 작은 의미이기도 하다.

나의 작업은 내가 생각하고 느껴지는 것들을 화면에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사고로 작업을 진행한다.

표현하고자하는 주제를 부각시키기에 필요한 것이라면 일정한 형식과 사고를 구속하는 공식을 탈피하고 비교적 자연스럽게 화면을 구성하여 보고자 노력하고있다.

그것은 보여지기위한 작품보다는 작품속에서 흐르는 정신적 내용들에 충실하기위한 나의 표현방법의 의지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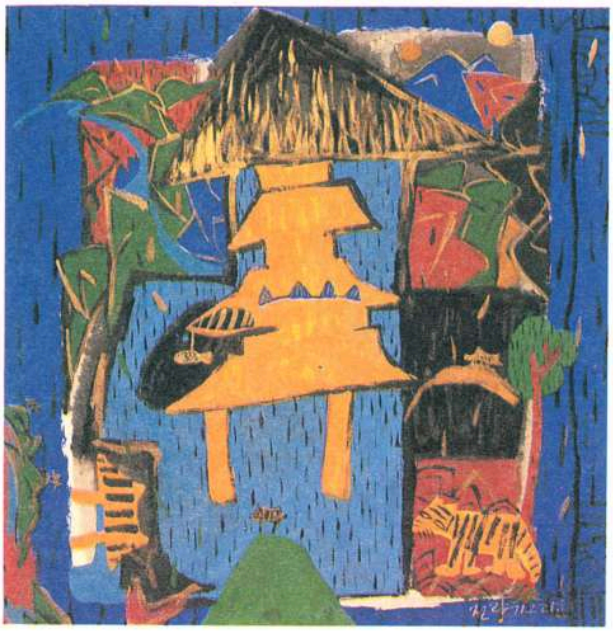
일기를 통하여 본 나의 환영. 130×970.
화선지에 혼합재료. '94.

'일기를 통하여 본 나의 환영'

어떤면에서는 지극히 정리된 화면과 함께 기호나 일기예보와 같은 시각적인 효과, 그리고 이를 파괴하는듯한 다분히 파괴적인 색감 등 나의 작업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동안의 양식적 회화에서 볼 수 없던 것들도 수용하여 왔다. 작업을 하면서도 한 작품이 완성되어질 때 느끼는 감정은 항상 다르다.

그것은 나의 작업욕구 그리고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작품을 대할때 느끼는 감정인 것이다.

그러나 무거운 마음과 때로는 묘한 전율과 같은 강한 흥분된 느낌으로 다시 하얀 화면을 채워나갈 것이다. 전북회화



전라도 기행 1994.

땅

지렁이라 불러지는 용의 아들 견훤 대왕이 기린이 토해낸 정기를 얻어 승암산을 중심으로 반월성을 쌓고 천하의 주인이고자 했던 땅이었다.

이웃의 이웃 사람들까지 죽음으로 몰아간 역모의 괴수, 정여립의 땅이요, 갑오년 동비들의 피비린내나는 모반의 바로 그 땅에서 태어났다.

역사의 그늘에서 끊임없이 소외되왔었고, 지긋지긋한 가난과 전쟁의 반복으로 점철된 민초들의 삶의 고통과 한스러움이 베어있는 이 땅이지만 벌써 삼십몇년인가를 떠날 엄두조차 못한 체 살아가고 있다.

결코 삶을 간과하지 않았기에 이미 찌들어버린 감성과 억압에 길들어져버린 덤덤함 뿐이었지만 애잔하게 이어온 삶의 끈을 씻김으로 소리로서 예술로서 승화된 그들의 넋두리는 결국 역사속에서 우리를 버텨내게 하였으며 생명을 뿌리내려 이제 이땅은 변화와 개혁이 있는 민중의 땅으로서 역사의 중심이 될 것이다.

하 늘

무릇 제왕이 장차 일어나려 할때 하늘은 상서로운 기운을 보이고 외침을 받거나 천재지변을 당할때 먼저 그 징조를 보인다 한다.

젊은 장수 견훤이 천하를 얻고자 했을때 기린봉의 달님은 여의주로 풀렸다고 한다.

인간들의 오만함이 극에 달하면 가차없이 응징했던 하늘이지만 이 땅의 하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혹했던 것같다.

원죄가 있었던가!

내리쬐는 햇살은 칠 년 가뭄속에 인간성까지 태워버리고 더이상은 못살겠다고 나랏님께 시위도 해보았지만 돌아온것은 죽음뿐—

어허널럴 어허이 어허널널 어허이—

참을수 밖에 없는 흐느낌만을 간직했기에 처절하고 처절했던 삶 속에 단을 만들고 우주목 우주석에 예쁜 때깔입혀서 기원하고 또 기원했다.

극함속에 쥐어짜낸 골수를 바쳐 하늘의 생명을 얻었다.

생명으로 이 땅의 정서는 그렇게 꽃피운다.

도래하는 변혁의 시기에 그대 가슴을 열어 생명의 빛을 뿌리소서.

사 람

그의 오만함은 끝내 하늘을 거부했다.

하지만 동굴속에서 튀쳐나간 그 호랑이에게서 나는 더욱 인간적인 삶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도덕적 금욕주의적 인간이기를 요구했지만 이러한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적 자유의지, 그 의지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바로 그 인간의 의지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역사를 바라보자.

그 역사속에서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볼 수 있으며 그 뿌리를 통하여 미래가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 땅을 대변하는 민중들의 삶은 암울하기 그지 없었다. 수동적이고 수직적 삶을 살 수 밖에 없었다.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민중들이 그들의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해가지 못한것은 아마도 처절함때문 이었으리라.

갑오년 동비들의 난리때 이땅에서는 20만명이 죽어 자빠졌다. 그들의 삶의 경험으로는 능동적이고 자각적 대처는 곧 죽음임을 알게 됐다.

그렇다.

이 땅은 역사의 장엄한 대서사시였던 것이다. 힘들다고 내품는 한숨에 가락이 얹히고 곡괭이, 낫질에 추임새가 멋들어지게 어울렸다. 이 땅에는 멋이 있다.

민중들의 삶속에는 독특한 정서로서의 미의식이 자연스럽게 베어있다. 지역주의 시대를 맞이하여 진정한 생명력을 회복하는 실천운동만이 민중들의 참 삶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역사와 전통속에 그 끈끈함을 이어가는 한 도래하는 문화전쟁시대에서도 더이상의 죽음은 없으리라.

전북회화



'소박한 감성의 자류로운 분출을 꿈꾸며'

임 소 형

나는 인물들, 특히 여인들을 화면에 등장시킨다. 이 여인들의 모습은 심각하거나 인간의 내면적인 것들을 파헤친 것이 아니라 상징적 형태로서의 사람의 모습들이고 또한 화면상의 중요한 조형요소로 작용된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 상황과 이미지를 통해 쉽고 감성적인 세계로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나의 화면은 은유되어지고 장식되어지기도 한다.

특히 우리고장의 밝은 빛깔과 풍요로운 자연은 항상 나를 그속으로 끌어들이고 화면의 색깔은 화려하고 장식적으로 어우러지게 하고 있다.

여린색의 봄에 피는 들꽃들, 돋아나는 새싹, 또 가을이면 주홍빛으로 번져가는 산과들의 색감은 나에게 감성적인 조형의 세계를 열어준다. 이렇게 다가오는 자연의 감성적인 색깔을 바탕으로 모든 여인들이 간직하고 있는 설레이고 잊을 수 없는 소녀적인 꿈들을 하나씩 펼쳐 보이고자 한다.

화면을 대할때마다 피아노의 건반을 조율하듯 내안의 감성들을 조율하며 그림을 그리고, 또 그림을 통하여 꿈을 꾸듯 자유스러워지고 싶다. 전북회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싱그러움으로 나에게 다가와 새롭게 나를 깨운다.

황 미 경

사각형!

위로 솟은 직사각형의 한 모퉁이에서 집이라 꾸미고 정원 아닌 정원을 만들어 놓고 그거라도 만족해야지 하며, 물도 주고 잎도 다듬어주고 자주 물청소하며 도시인의 목마름을 해갈하려 무던히도 노력하던 날들이 요즘 나의 작업인듯하다.

자연은 꾸미지 않았기에 아름답다.

자연은 가꾸지도 않았으며 만들어지지 않은 그대로의 像이기에 소박하고 더욱 좋다.

그러기에 도시인들은 산과 들 개울이 있는 시골을 좋아하며 찾는 듯 하다.

또 오늘날 우리들이 선조들의 소박하고 여유있는 生活을 동경하는 까닭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인 듯 하다.

어떠한 것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을 버리려고 노력해 보았다.

만든다는 것을 버리고 붓과 함께 마음의 자연을, 삶의 형상을 거닐어 보고 싶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는 마음의 허전함이 아름다움으로, 싱그러움으로 가득할때 음악의 음률이 스쳐갔다.

그리고는 붓을 잡고 같이 거닐어 보았다.

나는 지금 나의 공간에서 욕심부리지 않고 소박하고 편안하게 흘러가는 것이 마르지 않는 강줄기가 되어 계속 흘러갈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며 그림 그리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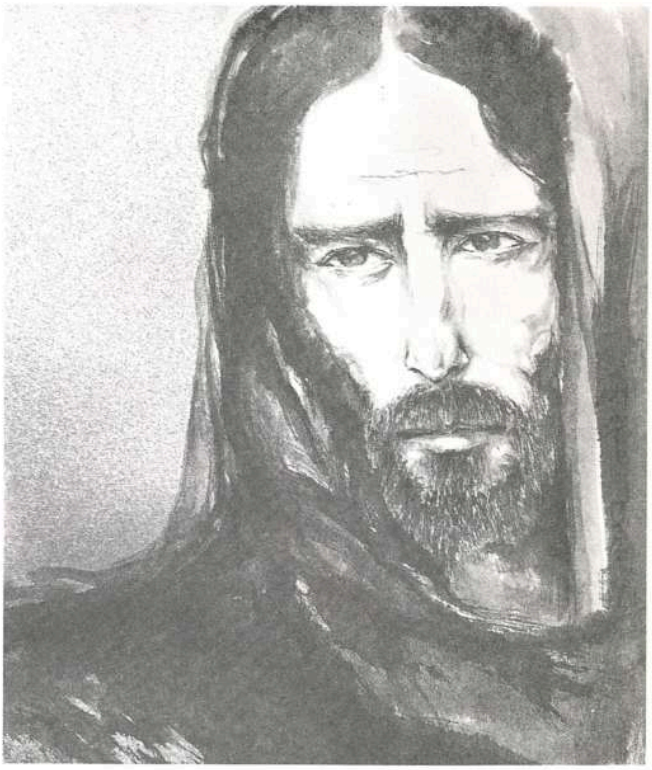
위를 보면 위압감에 눌려 질식할 것만 같다. 올려다 보지않고 여유있는 소박한 마음으로 마음의 서정을 옮겨 보려한다.

또한 마음 한편 위압감으로, 답답함으로 시달릴때 나를 위로해 주고 내마음을 촉촉히 적셔주는 아이들의 해 맑은 미소는 나에게 色과 음률이 되어 다가온다.

이렇게 얼마간 소박하고 편안하게 흘러가려 한다. 전북회화

진솔한 삶의 모습의 표현

문 순



십자가예수. 182×150. 한지, 수묵 1994

문순의 작품들은 자신의 주변환경에서 비롯되는 여러가지 정서들을 한 여성의 시각으로서 표현하고자 하고 있다. 그것은 자연에 대한 관조이기도 하며, 인생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기독교적 신앙심의 또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징들을 이 작가는 전통화법이나 법칙 등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소박하게 표현하고자 하고 있다. 문순의 그림들은 한편으로는 전통 수묵기법이 나타나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서양적 드로잉 기법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작가에게서 중요한 것은 기법보다는 표현의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문순의 작업에서 무엇보다도 두드러지는 것은 그녀 자신의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예수의 여러 모습을 그린 작품들을 들 수 있다. 그녀가 그리고 있는 예수의 모습은 사실적이지도 그렇다고 상징적이지도 않다.

어쩌면 실제의 예수모습은 그녀에겐 중요하지 않은지도 모른다. 그녀가 그려내고 있는 예수의 모습은 그녀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순의 작업은 여러 갈래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오랫동안 작업을 할 수 없었던 여건 탓인지 그녀의 그림은 한편으로는 거친듯한 느낌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작가는 세련된 필력보다는 비록 투박하나마 자신의 생활과 관련한 여러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표현하고자 하고 있다. 그림은 그녀에게 있어서 재능의 과시라기 보다는 풍요로운 삶의 윤활유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전북회화**

서울 : 1994. 12. 14(수) ~ 12. 20(화)
초대일시 : 1994. 12. 14(수) 오후 6:00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1 (T. 723-1864·5)
전주 : 1994. 12. 22(목) ~ 12. 30(금)
초대일시 : 1994. 12. 22(목) 오후 6:00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135(T. 0652-86-8114)

갤러리서호 GALLERY SEOHO

정 갤러리 CHONG GALLERY

이 영 재 (미술평론가)

고사리도 꺾을 때 꺾는다

전북의 문화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인구 이백만이 무너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전북, 전국 경제규모의 1%의 전북으로 자의와 실의의 나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전북이 문화적으로 새로운 환경을 맞게될 전망이다.

전북 예술회관이 전국 최대규모로 세워진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런가하면 전주 시립예술회관이 상당한 규모로 건립될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도립, 시립예술회관이 동시에 세워지면 이지역은 가히 예술의 고장에 버금가는 규모를 일단 갖추게 된다. 뿐만 아니다. 그동안 사설 전시공간이 급속히 팽창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 확대될 전망이며, 그만큼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기호가 증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지고보면 이는 필연적으로 맞게되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보아야 한다. 내년에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진다. 지방자치는 우리손으로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가꾸어야 할 스스로의 책무를 진다. 그리고 우리는 타 지역과 다른 훌륭한 전통문화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에게있어 가장 값진 유산이라할 것이다.

이렇게 잠재된 문화의식이 새롭게 개화될 조짐이 서서히 일고있다. 그 몫이 바로 우리 젊은 미술인들의 것이라는 자각이 필요하다.

그동안 미술인구가 많이 늘어났고 전시회 또한 빈번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볼거리가 많지않다는 관람자들의 질타를 외면하지 말아야한다.

"고사리도 꺾을 때 꺾는다"는 속담이 있다. 이는 어떤 일이고 시기가 있다는 말이다. 시기에 맞추어 일을 하라는 옛사람들의 지혜를 놓쳐서는 안된다. 좋은 전시장에 좋은 작품을 걸어야 한다. 이제 그 준비를 서둘러야 할 때이다. 전북의 젊은 미술인들이여! 예향의 자존심을 우리가 지켜가자. **전북회화**

이 철 량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교수)

'95 전북회화회 활동계획

1월 신입회원 환영모임

2월 동계수련회 및 스케치여행

4월 상반기 정기세미나 및 정기모임

6월 정기 **전북회화회전**

8월 하계수련회 및 스케치 여행
제3회 전북회화회 편집모임

10월 제3회 전북회화회 발행

11월 정기 테마전 주제 세미나

12월 정기테마전 예정
작가와의 대화 시간이 마련됩니다.

전북회화에 관심을 가지신
모든 분들의 투고와
전화를 기다립니다.

* 연락처 : 우 560－030
전주시 완산구 풍남 1동 41－2 3층

이 책자는 전라북도 문예진흥기금에서 지원 받았음.

'94 전북회화회 정기총회

▲ 일시 : 12월
▲ 장소 : 전북회화회 회의실
• 1년간 활동상황 및 회계보고
• 회칙 개정 및 차기회장 선출
• '95 신입회원 추천 및 영입

인쇄 : 서울정판인쇄사 ☎ (0652) 82－8267 · 86－5052

님

요금별납 전주우체국

전북회화

전북 회화를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 가는 이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다 정확히 알고 바로 보자는
젊은 한국화가들의 모임입니다.